

설가정예배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같이
대표기도	-----	-----	말은이
성경봉독	----- 빌립보서 3:10-16	-----	인도자
설 교	----- 꽃대를 향하여	-----	인도자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 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찬 송	-----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같이
합심기도	-----	-----	다같이

1. 가족을 위해(서로를 위해)
2. 친지와 이웃을 위해
3. 2019년 가정의 기도제목을 위해

주기도문	-----	-----	다같이
------	-------	-------	-----

< 꽃대를 향하여: 빌3:10-16 >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꽃대, 즉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인생의 꽃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바울의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세상적인

목표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고 종교적인 열심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 가족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올 한해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019년 우리 가족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아직 자신이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12절)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앞에 있는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앞에 있는 꽃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기억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달려가야 합니다.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14절)

달리기 선수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허사가 됩니다. 게으르게 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성실과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2019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성실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19년 우리 가정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